

## 8 칼빈의 성경에 대한 이해

양신혜 박사 /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칼빈은 「기독교 강요」 — 이하 「강요」라고 칭한다 — 에서 성경을 하나의 신학적 주제로 분류하여 조직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 인식을 다루는 가운데 「강요」 I. 6에서 성경에 대한 신학적 사고를 전개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성경에 대한 조직신학적 접근을 한 동시대 종교개혁자인 불링거 — *De scripturae sanctae autoritate*(1538) — 와 대조를 이룬다.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와 인간의 내적 종교체험의 보편성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다음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성을 등불처럼 명백하게 비추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이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성을 깨닫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으며,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 인도할 ‘다른 훌륭한 조력자’, 즉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이 「강요」 I. 6. 1에서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계시를 비교하고 있기 때

문에 무엇보다도 첫째, 그가 이 두 계시의 관계를 성경이 특별계시로서 일반계시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반계시 이외에 또다른 계시를 내포한 것인지, 그의 용어 '성경'(scriptura)와 '말씀'(verbum)의 관계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둘째, 성경의 전승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성경 형성 과정을 칼빈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한다(I. 6. 2). 특히 전승의 변하지 않는 본질인 '하늘의 진리'(caelestis doctrina)로서의 '독트리나,'<sup>1)</sup>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역사적 과정 속 인간의 산물인 성경 안에서 그 신적 권위를 담보하는지를 밝힌 후, 보편적인 진리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적 시·공간에서 '생기'하는 두 차원의 합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셋째, 칼빈은 어느 정도로 보편적 진리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성경 해석의 잣대로서 예수 이전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어떻게 역사적 예수의 구원 사역이 보편적 구원의 진리로서 종말론적 지평으로 변화했는지 접근해 보고자 한다.

### 1. 특별계시로서의 성경 이해

#### 1) '더 효과적인'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칼빈은 1539년 「강요」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성경에 대한 그의 신학적 사고를 전개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경건을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그의 광채를 예외 없이 보편적

1) 칼빈은 라틴어 독트리나를 사전적 의미인 '가르침' 내지는 '교리' 이외에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설명해야 할 경우, 본고에서는 이 단어를 음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으로 드러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작정하고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sup>2)</sup>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입까지도 친히 연 것이다. 또한 그는 선택 받은 자들이 마땅히 어떤 신을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들이 경배 드려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고, 일반적인 증거(communia illa documenta) 외에 자신의 말씀을 첨가하였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더 올바르고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이다.<sup>3)</sup>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족장들이 '말씀의 조명'(verbum illuminatio)을 통해서 '더 내적인 인식'(interiorem cognitionem)에 도달한다.<sup>4)</sup>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 이외에 '말씀'을 첨가한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한 '교회'를 위한 '작정'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자체를 통한 계시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구원의 방편을 작정하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계시의 방편이다.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자연 자체가 전하는 계시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거룩한 입'을 여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비교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언

2) OS III. 60, 38-9.

3) OS III. 60, 31-61, 7.

4) OS III. 60, 39-40; 1559년 판에서는 "이러한 수단"(hoc adminiculo)이라고 중성적 표현으로 나타냈지만, 1539년 판에서는 "말씀의 조명"을 통한 "더 내적인 인식"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말씀을 더 나은 인식을 얻기 위한 매개체로 간주하였다.

제나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주체이고, 인간은 수동적 청자로서 그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선 선택된 백성과 이외의 백성을 ‘더 올바르게 확실하게’(rectior ..... cetior) 구분하는 표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선택한 백성에게 신적 권위를 지니게 되어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칼빈은 1559년 최종판에서 계시의 매개로서 ‘말씀’의 우위를 하나님의 ‘선택 사상’과 ‘그가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 내려온 것’(accommodatio)이라는 사상과 연결하여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말씀의 빛을 덧붙인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propius), 그리고 더 친밀하게(familiariter) 모으려고 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특권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생각 때문에 크게 동요되는 것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한 후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 주었다. 하나님은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순수한 지식에 의존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곧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이롭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두 날말도 해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돈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선물로.....<sup>5)</sup>

칼빈은 성경을 “특별한 선물”(singular donum)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입을 여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말씀을 주신 목적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친밀하게” 모으려는 그의 사랑에서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선택하고, 그 말씀을 그가 선택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구별하는 표지로 삼았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 내려왔다는 사상을 내포한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순수한 하나님 인식’과 보존에 있으며, 하나님이 ‘더 많은’ 인간을 그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칼빈은 두드러지게 비교급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능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은’ 계시로서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자연 자체가 전하는 일반계시와 ‘말씀’을 통한 특별계시를 계시의 본질적 차원에서 내용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기능적 차원에서 오히려 그의 사랑과 섭리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칼빈이 1559년 최종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개념 이외에 ‘성경’(scriptura)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성경을 ‘안경’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적 측면에서 일반계시로서의 자연과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을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는 성경을 ‘책’으로 비유하여 책의 본질적 내용을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안경’에 비유함으로써,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경의 기능과 비교함으로써 성경을 통한 하나님 ‘인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돈의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역할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보여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성경은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5) OS III, 60; I, 6. 1. 글자의 밑줄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필자에 의한 것이다.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사용한 “말씀의 빛”(verbi sui Lumen)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로써 분명한 것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는 그 계시의 본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로서 인식의 ‘정도’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칼빈이 “참하나님을 보여 준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가 자연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계시를 계시의 본질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첫째, 그가 「강요」 I. 1~5에 걸쳐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종교적 체험’이 그 기능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부패하여 쓸모없게 되어 올바른 하나님의 인식으로 인도하지 못한 점을 밝혔다는 것에 우선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칼빈은 자연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신성이 나타나지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계시의 조명이 없이는”<sup>6)</sup>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의 역사적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을 통한 내적계시의 조명은 말씀을 통한 특별계시의 특성이므로, 이는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로서 인식 가능성을 다시 열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연이 비추는 빛은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비치는 보편적 특성으로 모든 인간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 불가능하게 된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장이 이해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말씀’과 ‘성경’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 칼빈은 구두전승(口頭傳承)시대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선이해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는 I. 6. 1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기록한 반면, I. 6. 2에서의 기록은 말씀의 기원을

모세의 율법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sup>7)</sup> 칼빈은 ‘말씀’이라는 용어를 구두전승과 문자전승을 포괄하는 총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경은 구두전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고 전승된 것으로 보고 있기에, 그에게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이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이다.<sup>8)</sup> 이러한 구분은 「강요」 I. 6. 4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자연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일반계시를 특별계시로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계획을 계시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칼빈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인 특별계시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차원의 일반계시보다 ‘더 나은’ 계시라는 의미에서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

칼빈은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전달하는 ‘말씀’의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교리와 구속주에 대한 “믿음의 본질적인 교리”(propria doctrina)<sup>9)</sup>, 소위 ‘이중 교리’의 인식에 두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말씀’을 통한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모으려고 선택한 백성들과의 인격적 계약 관계(promissio)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식하는 그 인식에 토대를 두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백성들과 구분 짓는 경계의

7) OS III, 62, 10.

8) 칼빈은 1554년 교리문답서 301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야만 하는가?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다”.

9) OS III, 61, 10.

6) OS III, 59, 8 ; I. 5. 14.

표지이다.

‘말씀’의 매개 없이 존재하는 구원의 본질로서의 독트리나는 단지 자연계시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만 실제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 효력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하나의 ‘가정’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계시가 전하는 일반적인 교리를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을 뿐이다.

이 말씀을 통한 계시는 “내적 인식”<sup>10)</sup>을 통해서 “중재자의 위격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인식”<sup>11)</sup>까지 가능하게 한다. 1559년 판에서 칼빈은 “친밀한 인식”(ad familiarem notitiam)<sup>12)</sup>으로의 ‘말씀’을 매개로 나타난 하나님과 그가 직접 선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었다.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 인식은 바로 ‘중보자의 위격으로 나타나는 구속주’ 인식을 내포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이 경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인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인식의 발판을 제공한다. 그러나 계시는 인식의 발판으로서 관계 형성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 관계는 독트리나의 내용이 해석되어지는 지평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해석의 지평에서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의 ‘선택’(electio)과 하나님이 ‘인간의 인식 능력에 맞추어 인간에게 내려 오시는 것’(accommodatio)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죄의 용서가 우선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하나님께로 인간을 인도하고 모으는 관계 형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sup>13)</sup> 이는 ‘내적 조명’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역사

적 사건의 본질적 근거로서 잠재되어 있는 구속주로서 하나님 인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섭리로 다스리며, 선함으로 영육하고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준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칼빈이 구원의 진리로서 독트리나를 형상과 본질로 구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칼빈은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내재한 그리스도를 독트리나의 본질로서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식이 다양한 역사적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이 형상의 본질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하나님 체험을 ‘어떤 의미에서’(quoddammodo)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친밀한 인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명백하게 그의 구원 사역을 인간 예수를 통해서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난 예수의 구원사역은 인간을 가르치기 위한 방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역사적인 접근 통로 — 시간적 선후 구분 — 가 열렸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사역으로 완성됨으로써 이는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간 차원으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계시의 전 역사를 포괄하는 인식의 보편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토대가 기독교적 해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믿음의 본질적 교리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인식과 구속주 하나님의 인식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됨을 알 수 있다.

10) OS III, 61, 17.

11) OS III, 61, 19-20.

12) OS III, 61, 9.

13) I. 2. 1 참조.

## 2. 역사적 문서들의 총체로서의 성경

### 1) 성경 전승의 본질적 토대

칼빈은 성경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나타낸 「강요」 I. 6. 2(1539)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구두전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냈든지 마치 후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처럼 그들의 임무를 통해서든지 선조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었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선 말씀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수되었고) 그들이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를 적용할 때마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항상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였다.<sup>14)</sup> 말하자면 그(하나님)은 소수에게 표징을 주어 특별히 그의 분명한 현존을 꿰뚫어 알게 하였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진리의 보물(salvificae doctrinae thesaurum)을 주었다. 그것 자체가 다시 후대인에게 전달되어야만 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계약(foedus aeternae vitae)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가족에게 퍼뜨려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전 후손들에게 확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살폈는지를 보았다. 더욱이 (이것으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별하였는데, 이것이 확실한 차이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로 말씀을 공유했기 때문이다.<sup>15)</sup>

칼빈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 현존 체험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족장들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후손에게

전달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는 전승의 연속성을 한편으로 ‘말씀에 참여’하는 행위, 바로 예전에 서 이루어지는 선포에 참여하는 행위,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에 토대를 둔 인식을 통해 보았다. 전승의 본질로서 선포의 말씀은 바로 “구원을 주는 진리의 보물”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계약”으로 이것이 전승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이는 하나님과 그가 선택한 백성과의 인격적 관계에 근거하여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확고한 믿음에 도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주체도 하나님이며, 이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도록 하는 믿음의 수여자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전승의 통일성이 주어진다. 믿음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진리가 전달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성경의 전승은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건”<sup>16)</sup>에 해당한다.

1559년 최종판에서는 1539년에 전승의 연속성의 방편으로 삼은 ‘말씀의 참여’가 뒤로 물러나고 ‘믿음을 통한 내적 확신’과 ‘가르침’이 두드러진다. 하나님이 족장들의 마음에 새긴 내적 확신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즉 내적 확신을 통해서 선조가 가르친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알리든, 아니면 사람들의 일과 사역을 통해서 알리든 간에, 그는 족장들이 그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진리(doctrina)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든든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것들이 하나님으

14) OS III, 62, 24-29.

15) OS III, 62, 29-38.

16) U. H. J. Koertner, *Theologie des Wortes Gottes: Positionen-Probleme-Perspektiven*(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54.

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인간의 모든 견해를 무한히 능가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다.<sup>17)</sup>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의 본질적 진리가 전수된다.<sup>18)</sup>

그렇다면 족장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확신에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의 표징을 계시 사건을 통해서 주신다. 인간은 이 표징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며, 이 경험은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인간에게 하나의 해석을 요구한다. 이 해석의 잣대를 칼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promissio)으로 삼았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전수의 본질로서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퍼져나가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엄하신 것은 인간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역동성을 지닌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더 나아가 영원한 진리인 독트리나로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영원한 독트리나로서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며, 널리 퍼지게 되는 힘이다. 이 영원한 진리의 힘의 근원지가 바로 주체인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내적 확신으로서 인간은 믿음 안에서 단지 진리로서 받아들일 뿐이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 근거하는 데,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을 건네는 자이고 주체자로 앞서 가는 자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는 수동적 입장에 서게 되고,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

17) OS III, 62, 1ff. ; I. 6. 2.

18) 칼빈은 성경의 전수 과정을 「강요」 I. 6. 2에서 '독트리나의 지속적인 전수'(continuus progressus doctrinae)로 서술한다. 이를 배틀즈(F. L. Battles)는 '지속적인 전수'의 의미로 이해한 반면, 팩커(James I. Packer)는 '발전'의 의미로 생각하였다. 본래 동사 '프로그래디오르'(progredior)는 두 의미, 즉 지속적인 전수, 그리고 발전을 모두 포함한다.

한 백성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로 경험되며 인식되고 해석된다. 이 해석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자비로운 아버지로 등장한다. 더 나아가 역사적 사건이 단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신앙고백의 차원으로 승화하게 된다. 전 역사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인정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 2) 율법의 해석사로서의 성경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는 역사를 섭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시원이 바로 율법이다. 그는 율법을 공적인 기록의 원형으로 삼았고, 이후에 이루어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 선포를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하였다. 칼빈은 율법의 기록자인 모세를 첫 번째 성경 저자로서 "율법의 해석자"<sup>19)</sup>로 여긴다. 율법의 해석자로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율법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일'뿐이다 : "하나님은 자신의 교리의 중심 내용들을 십계명에 짧게 요약하였고, 이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척도로서 충분하다. 후에 모세가 덧붙인 더 분명한 설명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이었다."<sup>20)</sup> 여기에서 그는 율법을 십계명인 삶의 규범으로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족장들이 맺은 약속과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기로 하고"<sup>21)</sup> 이를 위하여 율법을 선포한 것으로 이해한다.

칼빈은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도 율법의 해석자로 여겼다. 그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은 "율법의 참된 해석자들"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19) CO 25, 79 ; 출 31 : 18.

20) 율법.

21) OS III, 62, 10 : I. 6. 2.

“율법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눈을 율법의 목표로 향하게 하는”<sup>22)</sup> 데 있다. 문제는 선지자들이 율법의 해석 이외에 덧붙인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칼빈은 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백성들에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폭넓게’ 구원의 교리를 보여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았다: “선지자들의 임무는 율법과 떨어져 있지 않다. 율법에 이은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의 부록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덧붙인 것이 아니라 백성이 더 율법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sup>23)</sup>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목적은 그의 백성이 더 율법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예언은 율법의 시대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신학적인 관점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역사적 예수에게도 적용된다. 칼빈은 예수를 새로운 율법의 제정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가장 확실한 율법의 해석자”<sup>24)</sup>로 보았다. “그의 목적은 율법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욱 조이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안해 낸 갖가지 그릇된 것들로 인하여 매우 부패해진 율법의 참되고 진정한 이해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sup>25)</sup>

이는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적용된다. 사도들의 임무는 이미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을 다시 해석하는 일이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는 단지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이다.<sup>26)</sup>

이처럼 성경은 율법의 해석사(史)로서 해석의 총체이다. 칼빈은 율법

22) OS III, 327, 21ff.; II. 7. 1.

23) CO 44, 493; 말 4:4.

24) OS III, 368, 13; II. 8. 26.

25) OS III, 368, 5ff.; II. 8. 26.

26) 비교. OS V, 140, 1ff.; IV. 8. 8.

을 하나님과 족장이 맺은 약속의 연속선상에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을 이루는 근간으로 보았다. 이는 성경의 변하지 않는 본질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해석·적용된다. 칼빈의 관심은 역사적 삶의 상황에 따른 말씀의 적용에 있으며, 그 적용의 잣대로서 그는 독트리나를 구원의 진리로 삼았다. 이 독트리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이나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체험의 형태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진리에 대한 해석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이는 율법 해석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변화된 역사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온 적용의 결과로서 성경의 해석을 이해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스스로 적용하신 ‘교육자’<sup>27)</sup>로서 칼빈의 교육적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3. 구약과 신약의 관계

칼빈은 성경을 율법의 해석사로서 보았고, 율법을 그 통일성의 근거로 삼았다. 문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어떻게 율법이 복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경의 통일성을 이루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성경의 기독교적 해석이 어떻게 성경 해석에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의 근거로서의 율법에 대한 이해

칼빈은 ‘율법의 해석사’라는 관점에서 율법을 구약과 신약의 통일의 근거로 삼아 이해한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서 인간의 역사에

27) CO 38, 76.



적용되는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형성되었다. 역사적 과정에서 성경의 형성과정은 하나의 해석학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또 바울은 로마서 10:4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칼빈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칼빈이 어떻게 율법을 이해했는지 추적해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는 이사야 주석서 서문에서 율법의 중심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서술한다: “첫째, 율법은 윤리적 규정을 담고 있다. 둘째, 경고들과 약속들, 셋째,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즉 이 계약은 그리스도에 근거한 특별한 계약으로 율법에서 파악된다.”<sup>28)</sup> 윤리적 규정으로서의 율법은 바로 모세가 받아 전수한 것이고, 이를 선지자들은 경고와 약속들의 형태로 시대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구약의 역사는 율법의 시대적 적용으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그러나 율법은 고정된 객관적 체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 구원의 약속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된다. 이 해석 과정에서 칼빈은 본질과 형상을 구분하는데, 구원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만 그 본질을 나타내는 형상은 역사적 구체성을 띄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암묵적으로 드러났던 것”<sup>29)</sup>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율법의 해석으로 구약에 기록된 경고나 약속들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그 당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은혜의 계약이다. 그러므로 형상은 역사적이고 시간적이거나 그 안

28) CO 36, 19.

29) 윗글.

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구원의 사실(Tatsache)이며,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한 진리이며, 이는 불변하는 것이다: “모든 족장들의 계약은 실체와 실재에 있어서 우리의 것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으므로 절대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경륜의 방식은 다르다.”<sup>30)</sup>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계시된 진리(doctrina)를 ‘구원의 발전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발전사적 관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계시의 강화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주가 공훈의 계약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그 실현 방법과 계획을 질서 있게 이루었기 때문이다. 충만한 계시의 때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날마다 더 강력한 계시를 밝혔다.”<sup>31)</sup>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구약성경에서는 암묵적으로 숨겨져 있었으나 새로운 계약 관계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sup>32)</sup> 이 차이는 구원의 효력이 드러나는 방식에 있다. 구약에서 나타난 계약 관계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율법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약의 형태들이 나타났으며, 이 계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로마서 10:4에 기록된 ‘율법의 마침’을 율법의 의도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계명에서 나타난 의는 그리스도가 은혜의 덧붙임(값없는 전가)으로, 그리고 증생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까지 무익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 또는 마침이라고 명한다.”<sup>33)</sup>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부터 구원사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영적으로 숨겨져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다윗 왕국을 “율법의 부분”<sup>34)</sup>으로 표현하였고, 구원의 약

30) OS III, 404, 5ff.; II. 10. 2.

31) OS III, 420, 4ff.; II. 10. 20.

32) II. 11. 4. 참조.

33) OS III, 328, 30ff.; II. 7. 2.

속이 율법의 본질이고, 이 약속은 율법과 복음에 모두 적용된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본질이며 “율법의 정신”(legis anima)<sup>35)</sup>이다. 이에 근거해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약속의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율법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모세는 단지 율법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 교리, 즉 복음에 포함된 교리를 일반적으로 선포한 것이다.”<sup>36)</sup> 예수 그리스도는 “옛 계약의 기초”<sup>37)</sup>이고, 이 “옛 약속의 보증”<sup>38)</sup>으로서 율법에 내재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은 텅 비었고 내용이 없다.”<sup>39)</sup>라고 말할 수 있었다.

## 2) 기독교적 해석의 실례

칼빈의 기독교적 해석의 척도를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데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해석에 대한 그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시편 40 : 8을 주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0 : 5에서 시편 텍스트를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했다고 보았다. 첫째, 히브리서의 사도는 다윗이 모든 선택된 자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단지 그리스도에게만 국한시킨다. 둘째, 히브리서는 율법이 제정한 희생제물의 폐지를 다룬 반면, 다윗은 단지 희생제물이 참된 예배와 비교하여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셋째, 상이한 해석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히브리어 텍스트를 부적절하게 그리스어로 옮긴 데 있다고 보았다. 칼빈은 원전인 히브리어 텍스트에 더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는 텍스트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해석의 원칙임을 나타낸다.

34) OS III, 328, 1f.; II, 7, 2.

35) CO 47, 124; 요 5 : 38.

36) CO 49, 198f.; 롬 10 : 6.

37) OS III, 423, 13f.; II, 11, 1.

38) OS III, 421, 34f.; II, 10, 23.

39) CO 47, 124; 요 5 : 38.

이러한 칼빈의 해석 원칙은 그의 이사야 64 : 4 주석과 고린도전서 2 : 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우선 이사야 64 : 4에서 바울이 히브리어 원전을 해석의 텍스트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64 : 4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칼빈은 마태가 이사야 9 : 1~2을 인용할 때 그가 텍스트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낯선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예언이 그리스도가 해변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취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sup>40)</sup> “그렇지만 선지자는 단지 민족의 몰락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 이전에 하나의 규범으로 전 인류의 상황을 생각한 것처럼 다루었다.”<sup>41)</sup>

히브리어 텍스트에 대한 우위를 두었다는 점과 텍스트의 역사적 정황에 대한 진지한 숙고는 칼빈이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기독교적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창세기 3 : 15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창세기 3 : 15은 교회사에서 기독교적으로 해석되어 온 전형적인 구절이다. 여기에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연결된 ‘그 자신도’(ipsa)란 단어 해석을 문제시하였고, 이러한 오해가 “무지와 부주의의 예”<sup>42)</sup>라고 여겼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는 언어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그 당시 로마가톨릭 교회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사본을 해석의 텍스트로 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라틴어 번역본들과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언어적인 능력 없이 구약의 사본을 주해한다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밖에도 칼빈은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에 관심을 기울여 ‘자손’이라는 단어가

40) CO 36, 189; 사 9 : 2.

41) CO 45, 146; 마 4 : 13.

42) CO 23, 71; 창 3 : 15.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 오히려 '인류'를 나타내는 집합개념 또는 '일반적으로 후손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텍스트를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 적용의 차원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마귀와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칼빈은 이 싸움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기독교론적 해석의 발판을 제공하였다. 칼빈은 기독교론적 해석을 위해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칼빈은 시편 72 : 1 주석에서도 이 구절을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옹호한다: "이 구절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의 무리한 해석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곧장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sup>43)</sup> 또한 시편 88 : 6 주석에서도 칼빈은 어거스틴의 기독교론적 해석을 거부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주석에서 죽은 자 가운데 자유로운 자가 그리스도로, 그는 특별한 특권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이끌었고 그것(죽음)이 그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은 유치하며 시편기자의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sup>44)</sup>

이러한 해석의 예들은 칼빈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역사적, 그리고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우위를 두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성경을 구원사적 측면에서 역사적이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성경을 바라본 관점이, 구약성경 텍스트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임의적으로 기독교론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칼빈은 일방적으로 구약의 텍스트를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거부하고 오히려 역사적 해석을 토대로 드러난 문자

적 의미를 그 당시 시대적 정황에 적용하는 것을 성경 해석의 목적으로 삼아 귀결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결론

칼빈의 「강요」 I. 6을 성경에 대한 그의 이해의 관점에서 1539년 판과 1559년 판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칼빈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비교급을 사용하여 설명하는데, 이는 계시의 기능론적 역할에 대한 그의 관심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그가 자연과 성경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연계 되는 계시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이다. 이 매개체 없는 하나님 인식은 하나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단지 말씀을 통한 계시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 효능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칼빈은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계시를 본질의 차이에서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한 것으로,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자연을 통한 계시보다 기능론적으로 '더 나은' 또는 '더 효과적인' 계시임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을 통한 계시가 '더 나은 계시'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건네는 사건에 그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말을 걸어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 관계 회복에 그 우위성이 있다. 말씀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은 바로 그 말씀이 지닌 선택 사상과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 내려왔다는 사상에 토대로 두고 이루어진다.

둘째, 칼빈은 구원사적 측면에서 성경을 역사적·점진적 발전 과정

43) CO 31, 664; 시 72 : 1.

44) CO 31, 806f; 시 88 : 6.

의 산물로서 율법의 해석사로 여겼다. 이 해석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이 적용은 두 차원,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그 말씀이 인간의 구체적 상황에서 표현되는 역사성의 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융합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관계가 바로 해석의 토대이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 회복은 실존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며, 그 인식의 지평에서 해석하게 된다.

셋째, 율법 해석의 역사로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적용한 산물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적용했다는 관점에서 역사적 접근을 통한 성경 해석의 길을 열어 놓았다. 다른 한편으로 칼빈은 율법을 본질과 형상으로 구분하고, 그리스도를 영적이고 종말론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그의 영이 율법의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적 해석의 길 또한 열어 놓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둘의 관계에서 그가 텍스트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단순하게 기독교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을 비판하고, 말씀의 본래의 의미에 우위를 두었다는 사실이다.